

에티엔느 라모트 역주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 강독 입문

송태효

2022.00.00.

이때 삼천대천세계의 주인들 즉 브라흐마까이까데와 및 그들의 왕 마하브라흐마 시킨, 색계의 신들, 샤크라데벤드라, 욱계의 신들이 짜뚜르마하라지까와 더불어 붓다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바가와뜨에게 법칙의 바퀴를 굴려줄 것을 간청하였다. 그래서 대자대비한 보디사뜨와는 이전의 서원을 떠올리며 그 청을 받아들여 [k. 1, p. 58b] 법칙 즉 심오한 법칙과 뿌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하였다.*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

* 『대지도론』 해석에 의하면, 브라흐마가 법문을 청할 당시(위의 k. 1, p. 63 a b), 그 관건은 (대·소)승(Véhicules)의 구별 없이 붓다의 법칙 전반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응한 붓다는 소승의 핵심으로서 사성제뿐 아니라 대승의 기본을 이루는 매우 심오한 법칙과 뿌라즈냐빠라미따까지 설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소승과 대승 모두 동일한 스승 붓다 샤까무니 한 분에 의지하여 거의 동일한 용어를 통해 붓다 샤까무니의 삶과 법칙의 수레바퀴를 전승해왔으며 또 자신의 주요 문헌들을 붓다로부터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왔다. — 에티엔느 라모트, 『대지도론』 p. 13의 각주 1

경전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고 에티엔느 라모트 신부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헌정함

목차

범 례

서론 : 『대지도론』과 에티엔느 라모트

I. 꾸마라지바의 제자 승예의 『대지도론』 서문

II. 에티엔느 라모트의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 제일권 서문

III. 에티엔느 라모트의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 참고문헌 약어표

IV. 에티엔느 라모트의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제일편~제사편)

제일편: 마하쁘라즈냐빠라미따를 설한 이유 해설

제이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

제삼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총설)

제사편: ‘바가와뜨’라는 말의 설명

해제 : 에티엔느 라모트의 경전 번역의 정확성

참고문헌

제이편

이와 같이, 나에게, 들렸다, 한 때 EVAM MAYĀ ŚRUTAM EKSAMIN SAMAYE

‘이와 같이 Evam’ 왜 ‘이와 같이’로 시작하는가?

붓다의 법칙은 큰 바다라. 믿음이 그 입구요, 앎이 그 사공이니, ‘이와 같이’는 곧 믿음의 동의어이다.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충만한 자는 붓다의 법칙에 들어갈 수 있어도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 믿음 없는 자는 “이와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는 바로 믿음 없음의 표시이다. 믿음 있는 자라면 “진정 이와 같다”라고 말한다.

—

‘나에게 Mayā’ 무아인데 왜 내가 들었다고 하는가?

세간 법칙에 따라 ‘나’라고 하더라도 실제적 관점에서 설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비어 있어 본질적 ‘나’라는 것은 없으나, 세간 법칙으로는 ‘나’가 없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붓다의 제자들은 모든 존재의 비어 있음과 없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나아가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에도 집착하지 않으니 하물며 ‘나 없음’의 법칙에 집착하리요. 이러한 이유로 이들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들에게 왜 ‘나’를 언급하는지 물을 수 없다.

‘들렸다 Śrutam’
듣는 주체는 누구인가?

청각-기관으로 듣는 것도 아니요, 청각-인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요, 정신-인식으로 듣는 것도 아니다. 여러 원인·조건들이 결합하여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하나의 존재로 소리를 듣는다 할 수 없다[...]청각-기관이 파괴되지 않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에 이르러, 정신이 들으려 한다면, 대상[즉 소리]과 정신이 화합하여 청각-인식을 결정한다. 청각-인식에 이어 정신-인식이 생겨 갖가지 원인과 조건을 분석할 수 있어 소리를 듣기에 이른다. 이러한 연유로 “누가 소리를 듣는가”라고 물을 수 없다.

‘한 Eksamin, 때 Samaye’
왜 한 때인가?

비록 “한 때”라는 수가 실재하지는 한으나 세속을 따라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집합, 구성 요소, 인식 토대의 일어남과 소멸을 고려하여 비유적으로 시간을 언급했으나 개별 시간이란 실재하지 않는다.

범례

- 저본: Etienne Lamotte, 『나가르주나의 大智度論(*Le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 de Nāgārjuna*)』(이하 **LMppś**로 약칭) Tome I, Université de Louvain, Institut Orientaliste, Louvain-La-Neuve, 1981.
- II: 꾸마라지바의 제자 승예(僧叡)가 저술한, 『대지도론』(이하 **Mppś**로 약칭)의 서문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序」. 『大正新脩大藏經』에 수록되어 있으며, 에티엔느 라모트의 저본에는 누락됨.
- III: 한역 Mppś 내용을 토대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복원하고자 에티엔느 라모트가 참조한 방대한 참고문헌 약어표.
- IV: 라모트 신부의 프랑스어본 LMppś 제1장~제4장 본문 및 주석의 번역 - 문단마다 그 서두에 [歸敬偈],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를 설하는 이유] 등 단락별 주제 첨가.
- 에티엔느 라모트는 중요한 어휘가 반복될 때마다 괄호 안에 매번 프랑스어와 함께 산스크리트 표기를 반복하고, 한역에서 누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동사도 반복 추가 병기.
- 각주의 **파란** 부분은 라모트의 LMppś 원주. 라모트는 산스크리트, 빠알리, 티베트어 경전을 인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시작과 끝부분만 발췌 인용하였으나, 본서에는 가능한 한 전문을 인용 번역.
- 그 외 주석의 검은 부분은 신수대장경 Mppś, 영어본 LMppś의 역주, 다양한 반야부 경서와 논서, 국내외 니까야 번역본, 가산 지관 편저 『가산불교대사람』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역주임(Tr: 라모트의 산스크리트 및 빠알리 프랑스 번역. TTr: 역자의 산스크리트 및 빠알리 번역)
- 신수대장경 大智度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三’(卷第二)의 ‘第三’은 고려대장경 大智度初品總說如是我聞釋論‘第二’(卷第二)의 오기.
- 부록은 에티엔느 라모트의 번역과 연구를 위해 저술한 「수사의 정신과 학문적 글쓰기의 정확성 : 「어느 로만 가톨릭 신부의 불경 역주 연구 서설(*L'Esprit de la rhétorique et la précision de l'écriture scientifique*)」의 제목과 소제목을 본서의 취지에 맞게 수정한 글임(『프랑스어문교육』 Vol. 24, 2007).

외래어 번역 및 표기

- 라모트의 한역·산스크리트 원전 대조 취지를 살리고자 ‘반야바라밀 *prajñāpāramitāsūtra*’ → ‘쁘라즈나빠라미따’(한역 경명의 경우에만 『마하반야바라밀경』으로 표기)로, ‘보살 *bodhisattva*’ → ‘보디사뜨와’, ‘세존 *Bhagavat*’ → ‘바가와뜨’, ‘비구 *bhikṣu*’ → ‘빅슈’, ‘승가 *saṃgha*’ → ‘상가’, ‘수미산 *Sumeru*’ → ‘수메르’ 등으로 옮김.
- 산스크리트 용어 번역의 경우, ‘아비다르마 *abhidharma*’(l'A p'i Van, the A p'i t'an, 阿毘曇)처럼 원문 표기 발음을 따름.
- 라모트가 프랑스어 번역어를 생략하고 산스크리트로 표기한 경우 데와나가리 발음을 옮기고 역주에 원어와 한역을 병기함.
- 라모트의 프랑스어 원전에 프랑스어로만 표기된 용어들의 경우, 산스크리트 원어 표기가 생략됨.
- 프랑스어 ‘le Buddha’(그분 붓다)는 붓다로 옮기고 그 이외의 ‘Buddhas’는 모두 ‘부처’로 옮김.
- ‘dharma’의 경우, 붓다의 법칙, 붓다의 가르침, 자연법칙, 존재, 체계, 규범, 현상, 사상(事象), 마음의 대상, 실재, 진실의 상태를 뜻하나 문맥에 따라 그 본질적 의미들을 함축하는 ‘법칙’, ‘가르침’, ‘존재’, ‘대상’으로 한정하여 옮김. 하여, ‘제법실상’의 경우 원문의 뉘앙스를 살리고자 ‘모든 존재의 진정한 특성’으로 옮기고 ‘le vrai caractère des Dharma, the true nature of the dharmas, *dharmāṇāṃ satyalakṣaṇam*, 諸法實相’을 각주로 병기함.
- ‘le vide, the emptiness, *śūnya*’은 ‘비어 있는’ 혹은 ‘비어 있음’, ‘無我(impersonnel, non-self, *anatmaka*)’는 ‘나 없음’, ‘因緣(les causes et conditions, the causes and conditions, *hetupratyaya*)’은 ‘원인·조건’으로 옮김.
- 라모트가 한역의 원전으로 추정하여 인용한 산스크리트·빠알리 텍스트 번역의 경우 영역과 프랑스어역을 참조하였으나 오류는 역자의 책임임을 밝힘.

서론 : 『大智度論』과 에티엔느 라모트

꾸마라지바의 중국화 『대지도론』

『대지도론』(*Ta tche tou louen*)¹⁾(Mppś)은 『대지석론』¹⁾ 혹은 『마하반야바라밀경석론』²⁾으로도 불리며 『이만오천송반야경』³⁾의 네 한역본 가운데 꾸마라지바의 『마하반야바라밀경』(*Mahāprajñāpāramitāsūtra*)을 상술한 논서이다.⁴⁾ 구십 품 백 권으로 구성된 이 논서는 초기 니키야에선 언급되지 않은 보디사뜨와의 길과 공성의 진의를 정립한 반야부 논서의 전범으로 자리매김하였다.⁵⁾ 이 논서는 한역본으로만 전승되었으며, 正藏(1~1498)과 補板(1499-1514)으로 이루어진 『고려대장경』의 K 0549(14-493)에도 수록되었다. 그리고 『大正新脩大藏經』 第25卷 T 1509(25~57)의 pp. 57~756에는 그 비평본이 수록되어⁶⁾ 이를 저본으로 방대한 『대지도론』 연구가 이루어졌다. 안타깝게도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고려대장경』은 반야부 연구 토포스에서 거의 소외된 상태이다.

심도 있는 반야부 경전 연구 결과를 토대로 폴 드미에빌(Paul Demiéville, 1894~1979)⁷⁾은 소실된 산스크리트본 『대지도론』의 제명을 *Mahāprajñāpāramitāupadeśa*⁸⁾ 혹은 *Mahāprajñāpāramitāśāstra*⁹⁾로 상정하였다. *Mahāprajñāpāramitā* 한역은 흥시(弘始) 3년(CE 402년) 진나라 장안에 입성한 꾸마라지바에 의해 이루어졌다. 익년 4월 23일(CE 403.05.29) 요(姚) 황제 주도하에 『마하반야바라밀경』이란 제목으로 산스크리트 원전 한역에 착수한 꾸마라지바와 제자 승예¹⁰⁾가 12월 15일 번역을 완성하고 이듬해인 CE 404년 4월 교정 작업까지 마무리한다. 그해 5월 23일~6월 23일 사이 『마하반야바라밀경』 주석서 번역이 『대지도론』이라는 제명 하에 시작되어 CE 406년 2월 초하루 완성되었다.

- 1) 『大智釋論』
- 2)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 『마하반야바라밀경』을 풀이한 주석서. 高麗大藏經研究所의 경우, 약경명은 大論, 智度論, 智論, 별경명은 大智度經論, 大慧度經集要, 摩訶般若釋論, 釋論으로 풀이한다.
- 3) *Pañcaviṃśati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二萬五千頌般若經』
- 4) 다르마락사(Dharmarakṣa) 번역 『廣讀經』, 목살라(Mokṣala)-상가락사(Saṃgharakṣa) 번역 『放光般若經』, 玄奘(Hiuan tsang) 번역 『大般若波羅蜜多經』도 있다
- 5) “단지 『중야함』(*Madhyamāgama*)의 『본말경』(*Pūrvāparānatakasūtra*)에서 보디사뜨와 마이뜨레야에게 ‘그대는 훗날 마이뜨레야라는 이름의 붓다가 되리니’라고 수기를 내렸을 뿐이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조차 다양한 보디사뜨와의 실천에 관한 언급은 일절 없다. 이에 붓다는 마이뜨레야 등에게 보디사뜨와들의 실천을 설하려 한다. 이것이 붓다가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설한 이유이다.”(LMppś, p. 4~5)
- 6) 『大正新脩大藏經』 經號 1509, 冊 25, 頁碼(코드 페이지) P0057
- 7) 스위스 로잔 출신, 프랑스 국적의 중국학-산스크리트-불교학 대가. 동양어학교(Ecole des langues orientales) 출신,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Ecole française d’extreme-orient) 연구원. 중국학 고등연구원(Institut des hautes études chinoises), 고등연구학교 제사책션(E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IV section)에서 연구. 폴 펠리오(Paul Pelliot)를 이어 『통보』(通報) 편집, 앙리 마스페로(Henri Maspero)를 이어 콜레주 드 프랑스에서 중국어문학 강의. 『법보의림』(法寶義林) 편찬.
- 8) ‘upadeśa’는 ‘論議, 法義, 說義, 法設, 己說, 大教’로 한역된다. 그럼에도 드미에빌의 견해대로 “釋論”은 ‘upadeśa’에 해당한다.” 김형희, 『般若經의 十八空法-대지도론의 설명과 라모트의 주석-』, 경서원, 2008, p. 311.
- 9) ‘śāstra’는 교훈, 규칙, 교보, 개괄, 서책, 논문 등을 뜻하며 인도 저술의 제명에 접미사로 사용되었다.
- 10) Sengrui, 僧叡(CE 371~438). 허난성(河南省) 창러(長樂) 출생으로 십팔 세에 승현(僧賢)에게 사사하고 꾸마라지바의 제자가 되어 『묘법연화경』, 『대지도론』, 『중송』 등을 함께 번역·교정하고 서문을 썼다. 에티엔느 라모트의 『나가르주나의 대지도론』에는 승예와 그의 서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산스크리트본은 삼백이십만 음절¹¹⁾(삼십이 음절 × 십만 계송) 즉 일천 권 삼백이십만 자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한역본은 그 십 분의 일에 지나지 않는 백 권(삼십이만 자)의 불완전한 판본에 그치고 말았다. 저본 『마하반야바라밀경』처럼 구십 품(品) 백 권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그 논서 『대지도론』은 저본과 주석본의 품이 상응하지 않고, 판본마다 품과 권 배열이 다르며, 돈황본의 경우 품의 구분도 없다. Mppś는 초품 주석에만 삼십사 권이 할애되었고 나머지 품들은 삼분의 이로 줄여 주석하였다. 예를 들어 ‘마하쁘라즈나빠라미따’, ‘여시아문일시세존’과 같은 경전의 서두 부분 용어들의 중요성과 의의를 반복하여 상술하였으나. 釋報應品第二(卷三十五) 이하 다른 품들은 한 권 내지 세 권 정도의 주석으로 간략한 풀이를 담고 있다. 나아가 중국 독자의 흥미를 더하기 위해 당시 인도 상황을 가필하고 품목을 세분화하랴 두 해가 지나서야 비로소-나가르주나¹²⁾ 보살의 원저와는 다른 꾸마라지바의 중국식 논서이지만-Mppś가 한역본으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프랑스어본 『대지도론』¹³⁾과 영어본 『대지도론』¹⁴⁾

오랫동안 『대지도론』은 『중송』¹⁵⁾과 『보행왕정론』¹⁶⁾을 포함한 『중관이취육론』,¹⁷⁾ 『십이문론』¹⁸⁾ 등을 통해 대승경전이 붓다의 정통 법칙임을 증명한 밀교의 시조 나가르주나의 저술로 간주되어 왔다. 하지만 『대정신수대장경』의 『대지도론』은 나가르주나 사후에 저술된 논서를 언급하고, 가필과 축약을 담고 있어 별도의 공동 집필자 혹은 동명이인의 저술이라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그 논의의 기원에 벨기에 신부 에티엔느 라모트가 위치한다. 그리스어, 산스크리트, 빠알리, 티베트어에 능통한 라모트는 인도 불교 문헌을 발굴 수집한 브라이언 호튼 헛스슨(Brian Houghton Hodgson), 그 자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구한 그리스 철학 및 산스크리트 전문가 장루이 뷔르누프(Jean-Louis Burnouf, 1775~1844), 최초로 산스크리트 『법화경』¹⁹⁾을 프랑스어로 번역한 그의 아들 으젠 부르누프(Eugène Burnouf, 1801~1852), 이를 계승한 에마뉘엘 에두아르 샤반느(Émmanuel-Édouard Chavannes, 1865~1918), 실뱅 레비(Sylvain Lévi, 1863~1935), 루이 드 라 발레-푸쟁(Louis de La Vallée-Poussin, 1869~1938), 장 프르질뤼스키(Jean Przyluski, 1890~1967), 폴 드미에빌, 마르셀 랄루(Marcelle Lalou, 1890~1967), 앙드레 바로(André Bareau, 1921~1993)의 학문적 계보의 정점에 선 가톨릭 사제이자 당대 최고의 인도학-불교학 연구자로 자리매김하였다.

11) 3,200,000 syllabes(gāthās)

12) 龍樹菩薩(Bodhisattva Nāgārjuna, CE 150년~250년?)

13) Etienne Lamotte(1903~1983), *Le Traité de la Grande Vertu de Sagesse de Nāgārjuna*(이하 LMppś), Université de Louvain, Institut Orientaliste, Louvain-La-Neuve, 제일권(제일~제십오), 1944, p. 1~620; 제이권(제십육~제삼십), 1949, p. 621~1118; 제삼권(제삼십일~제사십이), 1970, p. 1119~1733; 제사권(제사십이_속~제사십팔), 1976, p. 1735~2162; 제오권(제사십구~제오십이), 1980, p. 2163~2451. 본서 IV는 제일~제십오로 구성된 LMppś 제일권의 제일, 제이, 제삼, 제사의 역주이다.

14) Gelongma Karma Migme Chödrön, *The Treatise on the the great virtue of Nāgārjuna*, 2001(online PDF 공개본)

15) *Madhyamaka-karika*, 『中論』

16) *Ratnavali*, 『寶行王正論』, 샨따와하나(Satavahana) 왕조 시대의 친분 있는 왕에게 서간문 형식으로 전한 조언. 산스크리트 원전, 티베트역, 한역이 현존한다. 『보행왕정론』, 신상환 역, 도서출판비, 2018년 참조.

17) 『中觀理聚六論』

18) *Twelve Gates Treatise, Dvādasā-dvāra-śāstra*, 『十二門論』

19) *Le lotus de la bonne loi, Saddharma Puṇḍarīka Sūtra*, 『妙法蓮花經』

에티엔느 라모트는 『신비에 관한 해설』(1935),²⁰⁾ 『유마의 법칙』(1962),²¹⁾ 『바수반두: 業 개론』(1936).²²⁾ 『아상가, 대승전서』²³⁾ 등의 번역 그리고 『바가바드기타 주석』(1929),²⁴⁾ 『재가 불교』(1955),²⁵⁾ 『인도 불교사』(1958),²⁶⁾ 『붓다의 전설』(1948~1948),²⁷⁾ 『알렉산더 대왕과 불교』(1951)²⁸⁾ 등 산스끄리트, 빠알리, 티베트어, 한문 등 출중한 고전어 지식에 근거한 저작을 출간하여 그리스-인도-불교학의 정신적 계보를 정립하였다.

특히 1944년~1980년에 걸쳐 대승 불교 연구의 장엄하고 경이로운 결집인 LMppś 제오권(사십구 편~오십이 편, 이십 편 제이부²⁹⁾) 집필을 마지막으로 라모트는 인도학 및 불교학 연구자의 전범으로서의 숭고한 삶을 마감하였다. 산스끄리트 경전, 아가마(Āgamas)와 니까야, 다양한 경전과 논서들에 관한 서지학적 Mppś 연구를 토대로 산스끄리트본에 상응하는 『대지도론』 비평본을 집대성하는 데 일생을 바친 사제 라모트는, 다양한 언어학적 고증과 문헌 비평을 통해 붓다의 초전법륜이 이미 대승의 보디샛뜨와의 길을 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중관학을 초기불교의 현대화로 자리매김한다. 대승 경전의 출현은 이미 초기 불교 이후 오랜 시간을 거쳐 이루어진 새로운 시대의 정신적 성품과 염원의 발로였다. 라모트 역시 한역을 토대로 빠알리 및 산스끄리트 원전들을 추적 복원하여 중국적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초기 대승 경전에 붓다의 가르침의 현대성을 부여한 것이다.

에티엔느 라모트의 LMppś 작업의 역사적 가치를 인지한 캐나다 빅슈니 겔롱마 까르마 믹메 쩌뎨(Gelongma Migme Chödrön, 1924~2016)이 이를 영역하여 2001년 *The Treatise on the Great Virtue of Wisdom of Nāgārjuna*라는 제명으로 온라인에 공개하였다. PDF본 공개는 저작권 문제가 원활히 해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스님의 과감한 결단이었다. 간간히 발견되는 번역의 숙명으로서의 극히 사소한 오타자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물은 『대지도론』 번역사에서 희유의 가치를 지닌다. 이해관계와 영예를 떠나 오직 불법 전파를 위해 헌신한 대학승의 불사인 만큼, 존경하는 쩌뎨 스님의 번역은 대승불교가 본연적으로 추구하는 보살행의 귀감을 보였다. 스님은 이외에도 『마하쁘라나빠라미따우빠데사』³⁰⁾의 십칠~삼십 장을 역주한 『나가르주나 여섯 빠라미따론』,³¹⁾ Mppś의 흥미로운 일화를 모아 번역한 『쁘라즈나빠라미따의 경이로운 이야기들』³²⁾ 그리고 나가르주나의 『왕에게 쓰는 편지』³³⁾ 등 나가르주나의 저술 번역에 전념하다 2016년 10월 11일 캐나다 폴 리버(Fall River) 소재 카르마 창츨링(Karma Changchub Ling) 명상 센터에서 입적하였다. 스님의 자비와 공덕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고개 숙인다.

20) *L'Explication des mystères, Saṃdhanirmocana Sūtra*, 『解深密經』

21) *L'Enseignement de Vimalakīrti, Vimalakīrtinirdeśa*, 『維摩經』

22) *Vasubandhu: Le Traité de l'acte de Vasubandhu, Karmaśiddhi-prakarāṇa*, 『成業論』

23) *Asanga: La Somme du Grand Véhicule, Mahāyānasamgraha*, 『攝大乘論』

24) *Notes sur la Bhagavad-Gītā*

25) *Le bouddhisme des Laïcs*

26) *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27) *La légende du Buddha*

28) *Alexandre et le bouddhisme*

29) le chapitre XX de la seconde série, 산스끄리트 본에 상응하는 축약 한역본 주석이며 보살 십이도를 다룸.

30) *Exegesis on the Great Perfection of Wisdom Sutra, Mahāprajñāpāramitā-upadeśa*

31) *Nagarjuna on the Six Perfections*, Kalavinka press, 2008

32) *Marvelous Stories from the Perfection of Wisdom*, Kalavinka press, 2008

33) *Letter to a Friend(l'épître du Suhrillekha)*, 『親友書』

『대지도론』, 『팔천송반야』, 『이만오천송반야』, 『십만송반야』

LMppś 제삼권(1970) 출간 시 그 서두에서 Mppś의 기원과 그 저자에 관해 상세한 연구 결과를 밝히게 될 라모트는 일단 그의 주석서 LMppś 제일권 서문에서 Mppś를 『이만오천송반야』의 ‘방대한 주석서’라고 정의한다. 번역사에서 『대지도론』이 접하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라모트의 서지학 연구에 의거한 반야경 번역 범주를 간략하게 분류해보자.

1) 소품반야경 번역

반야부 경전으로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짧은 판본’(소품)은 삼십이 字 계송 팔천 句로 이루어져 있고 제명은 *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³⁴⁾이다. 산스크리트 원본은 1888년 라젠달랄라 미트라(Rājendralāla Mitra)에 의해 그리고 1932년~1935년에 걸쳐 오기하라 운라이에 의해 출간되었으며,³⁵⁾ 티베트어(TIB. Trip. 734)로 한 번 번역되고,³⁶⁾ 여섯 번에 걸쳐 한역되었다.³⁷⁾

- T 220 『대반야바라밀다경』³⁸⁾
- T 224 『도행반야경』³⁹⁾
- T 225 『대명도경』⁴⁰⁾
- T 226 『마하반야초경』⁴¹⁾
- T 227 『소품반야바라밀경』⁴²⁾
- T 228 『불모출생삼법장반야바라밀경』⁴³⁾

2) 대품반야경 번역

일반적으로 『마하반야바라밀경』이라는 이름의 ‘긴 판본’(대품)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만팔천송반야경』⁴⁴⁾

만팔천 송으로 이루어진 이 경은 1962년 에드워드 콘제(Edward Conze)에 의해 일부 출간되었으며, 각각 한문(T 220, N° 3, 『대반야바라밀다경』)과 티베트어로 한 차례(TIB. Trip. 732) 번역되었다.⁴⁵⁾

34) 『小品般若經』, 『八千頌般若經(Perfection of Wisdom in 8,000 Lines)』

35) *Wogihara Unrai Bunshu*(『荻原雲來文集』). 오기하라 운라이(1869~1937), 『実習梵語学』(1916年), 『法句經』(1935), 『漢訳対照梵和大辞典1-16』(1940), *Bodhisattvabhūmi : a statement of whole course of the Bodhisattva*(『梵文瑜伽師地論』, 1930) *Abhisamayālamkāra Prajñāpāramitāvyākhyā: the work of Haribhadra*(『梵文現觀莊嚴論に見えたる般若波羅蜜多釈』, 1932).

36) *sher phyin gryad stong pa*

37) 한국어 번역 『팔천송반야경(*Aṣṭ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sūtra*): 붓다의 사상적 혁명, 대승경전의 시작과 그 뿌리』, 전순환 역, 불광출판사, 2019 참조.

38) 『大般若波羅蜜多經』(第四会/第五会: 券538-券565)

39) 『道行般若經』

40) 『大明度經』

41) 『摩訶般若鈔經』

42) 『小品般若波羅蜜經』

43) 『佛母出生三法藏般若波羅蜜經』

44) *Aṣṭādaś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45) 고려대장경에는 K1(10) 『일백오십송반야경(*Adhyardhaśatikāprajñāpāramitāsūtra*)』, K1(11-15) 『

2) 『이만오천송반야경』

한역 네 권과 티베트어역 한 권이 현존한다.

- T 222 『광독경』,⁴⁶⁾ 다르마락사(Dharmarakṣa)⁴⁷⁾ 번역. CE 286.
- T 221 『방광반야경』,⁴⁸⁾ 목살라(Mokṣala)⁴⁹⁾, 상가락사(Saṃgharakṣa)⁵⁰⁾ 번역. CE 291.
- T 223 『마하반야바라밀경』(Mppś의 저본),⁵¹⁾ 구마라지바(Kumārajīva)⁵²⁾ 번역 CE 403~404.
- T 220 『대반야바라밀다경』,⁵³⁾ 현장(Hiuan tsang)⁵⁴⁾ 번역 CE 660~663.
- Tib. Trip. 731. *Śes rab kyi pha rol tu phyin pa stoṅ phrag ṅi śu lña pa*. 역자 미상.

대품반야경 해설서로는 마이뜨레야(Maitreya)⁵⁵⁾의 『현관장엄론』⁵⁶⁾ 교정본 두 권이 전해지고 있다.

- 날리카나샤 두트(Nalikanasha Dutt)가 발췌 번역하여 출간한 *Āryapañcaviṃśatisāhasrika bhagavatī prajñāpāramitā, abhisamayālaṃkāraṅanusāreṇa saṃśodhitā*. 1934.
- Tib. Trip. 5188 : 시바 잔뽀(Śi-ba bzaṅ-po)와 출끄리마 겐바(Tshul-khrims rgyal-ba)가 출간한 *Śes rab kyi pha tol tu phyin pa stoṅ phrag ṅi śu lña pa*, 연대 미상.

3) 『십만송반야경』⁵⁷⁾

- 산스크리트본 : 그 일부를 프라탑 찬드라 고샤(Pratap Chandra Ghoṣha)가 번역 출간. CE 1902.
- 한역 : T 220, N° 1
- 티베트어역 : Tib. Trip. 730.

이외에도 짧고 긴 반야경들이 다수 출간되었지만 안타깝게도 Mppś의 역자 구마라지바와 그 서문의 저자 승예는 이 사실을 몰랐다.⁵⁸⁾ 『마하반야바라밀경』을 번역하던 그는 앞서 말했듯이 이 경의 주석서까지 번역하면서 한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도의 풍물과 문화를

일천팔백송반야경(*Pañcapāramitānirdeśa*), K1(16) 『이천백송반야경 (*Suvikrāntavikramiparipcchāprajñāpāramitāsūtra*)』 등도 수록되어 있다.

46) 『廣讀經』

47) 竺法護(239-316)

48) 『放光般若經』

49) 無羅叉(242?~341?)

50) 僧伽羅叉(생물년 불상)

51) 『摩訶般若波羅蜜經』(27卷)

52) 鳩摩羅什(344~413)

53) 『大般若波羅蜜多經』(600卷)

54) 玄奘(602~664)

55) 彌勒(5C)

56) *Abhisamayālaṃkāra*, 『現觀莊嚴論』(現證莊嚴論). CE 5C 경 저술. ‘아비사마야(*abhisamayā*)’는 티베트어로 ‘원빠르톡빠(mngon par rtogs pa)’이며 직관적 지각을 의미한다.

57) *Śatasāhasrikā Prajñāpāramitā*

58) 에드워드 콘체가 『쁘라즈나빠라미따 문헌(*The Prajñāpāramitā Literature*)』(1960)에 반야부 경전 연구 성과를 집약하였다.

부연 설명하고 과감히 원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Mppś 번역은 『마하반야바라밀경』 번역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안타깝게도 구마라지바는 마이프레야의 반야경 주석서 『현관장엄론』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 하여튼 중국에서 출간된 번역서 이외에 인도와 티베트에서 출간된 Mppś에 관한 정보가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Mppś에 관한 한 구마라지바 번역만이 유일한 전거로 작용한다.

뿔 드미에빌의 연구 성과를 통해 알 수 있듯 돈황에서 발견된 자료들에는 ‘摩訶般若波羅蜜經釋論’이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하며, 실제로 구마라지바의 제자 승예는 그 서문에서 ‘大智’와 ‘釋論’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또한 Mppś 제20권 p. 208 b 16의 ‘般若波羅蜜論’이라는 표현에 드러나듯 Mppś의 특성은 ‘論議(upadeśa)’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중송』의 나가르주나와 『대지도론』의 나가르주나

Mppś는 소송의 수행과 깨달음의 현실적 한계를 절감하고 재가자의 보살행과 깨달음의 의미를 확장해야 할 전환의 시기에 등장한 반야경 주석서이다. 그러나 밀교의 주요 서적 가운데 하나인 『대비로자나성불신변가지경』⁵⁹⁾을 발견하고 초월적 지혜로 『중송』을 저술한 나가르주나와 Mppś의 저자 나가르주나는 동명이인으로서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폴 드미에빌과 라모트에 따르면, 역대 논자들의 논리를 넘어 대승 중관학을 창시하고 절대 공성(sūnyatā)에 이른, 팔종의 조사 나가르주나와 Mppś를 저술한 나가르주나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활동한 동명의 대논사들이다. 라모트는 Mppś 저자를 『중송』뿐 아니라, 아르야데와(Āryadeva)⁶⁰⁾의 『백론』,⁶¹⁾ 라훌라바드라(Rahulabhadra)⁶²⁾의 『찬반야바라밀계』⁶³⁾ 등 CE 3세기부터 널리 전파된 경전들을 능란하게 언술함으로 미루어—적어도 삼 세기 이후 인물로 설일체유부 혹은 근본설일체제의 승려였으나 이후 대승 중관학파로 개종하여 설일체유부 아비다르마에 대항하는 방대한 주석서를 쓴 승려로 추정한다.⁶⁴⁾ 이와 달리 일본의 干瀕龍祥은 나가르주나의 Mppś에 역자 구마라지바가 다양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라는 반론을 제시한 바 있고,⁶⁵⁾ 중국 승려 印順은 Mppś의 저자는 나가르주나라는 전통설을 다시 제기하였으며, 서문을 쓴 구마라지바의 제자 승예의 편집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⁶⁶⁾

라모트에 의하면 Mppś의 저자 나가르주나는 남인도 출신 『중송』의 나가르주나⁶⁷⁾와 달리 4세기 초 쿠샤나(Kuṣāṇa)⁶⁸⁾ 시대의 인도 서북부 출신 성직자로 설일체유부 아비다르마 전문가였다. 이 시대 인도 서북부는, 자연 종교와 기독교가 공존했던 중세 고딕 시대가 그러하듯, 다문화 공동체 사회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문과 주화, 문학 서적과 브라만교, 힌두교, 자이나교, 불교 및 원시종교가 공존하는 시대였다. Mppś의 저자는 트리빠따까를 암기하

59) *Mahāvairocana-sūtra*, 『大毘盧遮那成佛神變加持經』

60) 阿利耶提婆

61) *Śataśāstra*, 『百論』

62) 羅侯羅城羅

63) *Prajnaparamitastora*, 『讚般若波羅蜜偈』

64) LMppś, Vol. III Chapters XXXI~XLII, 2001, page 876~877.

65) 干瀕龍祥, 「大智度論の作者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7卷, 1958~1959 1号.

66) Chou, Po-kan, *The Problem of the Authorship of the Mahāprajñāpāramitopadeśa: A Re-examination*, Thesis(Ph.D.), The University of Chicago, 2000.

67) 나가르주나의 전기는 구마라지바의 『龍樹菩薩傳』, 부핀의 『불교사』, 따라나타(Tāranātha)의 『불교사』 속 나가르주나의 전기를 통해 알려져 있듯 모두 남인도를 배경으로 전승되어 왔다.

68) 승가 왕조(Suṅga, BCE 183-1) 멸망 후 인도는 북인도의 쿠샤나 왕조(CE 48~220)와 남인도의 안드라(Andhra) 왕조(BCE 60~CE 290 경)로 이어진다.

고, 설일체유부의 아비다르마를 천착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초기 중관학파 논사들의 저술을 깊이 공부하여 참다운 중도를 설하기 위해 『이만오천송반야경』의 주석서를 완성하기에 이른다.

라모트는 Mppś의 나가르주나가 대승 입문 이전에 이미 까시미르-간다라에서 설일체유부와 아비다르마 전문가로서 육분아비담⁶⁹⁾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Mppś에는 아비담마에 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하는데 반론보다 그 설명이 열 배나 되며 더욱 심층적인 설명이 가능함에도 개요 서술 수준에서 그치고 있음을 역설한다. Mppś에 언급된 아비다르마를 열거하면, 『중사분아비담론』,⁷⁰⁾ 『아비담팔견도론』,⁷¹⁾ 『가전연자아비담』,⁷²⁾ 『아비달마대비비사론』,⁷³⁾ 『아비달마발지론』,⁷⁴⁾ 『아비담감로미론』⁷⁵⁾, 『아비담심론』⁷⁶⁾ 등으로 저자는 설일체유부와 아비담마에 통달하여 소승과 대승 반야부를 아우르는 교학의 진정한 공동의 장소로 인도하는 보리심과 자비의 참 스승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내용은 반야경의 서두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여시아문’ 해설에서 드러나듯, 그가 교학에 입각하여 탈자아의 무아와 공성을 실천하는 모든 보디사뜨와의 수행을 높이 샀다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진정한 불설로서의 대승 경전

Mppś는 『중아함』, 『장아함』, 『잡아함』, 『증일아함』과 『본생담』을 인용하고 설일체유부의 아비다르마 일부 교의와 계율을 아우르며 보살행을 강조한다. 라모트는 특히 『대품반야경』의 薩陀波崙品 第八十八(常啼品)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이 품은 상루보살(Sadāprarudita)⁷⁷⁾이 간다라의 간다와띠(Gandhavatī)에서 금박종이에 녹주석을 녹여 기록하고 일곱 도장으로 봉인한 반야경전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겪는, 구도를 향한 살신성인의 감동적 보살행을 상술하고 있다.⁷⁸⁾ 설일체유부 승려들은 이러한 보디사뜨와 구도기를 비판하며 대승 경전을 위경으로 폄하하였다. 하지만 Mppś의 저자 나가르주나는 대승을 불신하고 그 증거를 무시하며 오직 스라바까(sravaka)만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반박한다:

“그것[비판]은 큰 오류인 것이, 대승 경전은 부처가 올곧게 말한 진실한 교리이기 때문이오. 당신들은 그것을 버려서는 아니 되오. 게다가 당신들은 자신의 원류를 대승에서 끌어내고 있다오.”(LMppś, p. 293)⁷⁹⁾

대승 경전을 비불설로 간주하고 스라바까의 체계만 강조하는 설일체유부 대중에게 그러한 주장은 자만에서 기인하는 오류에 지나지 않으며, 대승 경전 역시 여법한 불설이요 설일체유

69) *Abhidharma of Six Feet, Ṣaṭpādābhidharma*, 『六分阿毘曇』

70) *Prakaraṇapāda*, 『衆事分阿毘曇論』

71) *Abhidharmajñānaprasthānaśāstra*, 『阿毗曇八犍度論』

72) *Kātyānanīputrābhidharma*, 『迦旃延子阿毘曇』

73) *Abhidharmamahāvibhāṣāśāstra*, 『阿毘達磨大毘婆沙論』

74) *Abhidharmajñānaprasthānaśāstra*, 『阿毗達磨發智論』

75) *Abhidharmāmātarasaśāstra*, 『阿毘曇甘露味論』

76) *Abhidharmahdayaśāstra*, 『阿毘曇心論』

77) 소싯적 울기를 좋아하거나 불행한 운명에 떨어지거나 가난하고 굶주리고 늙고 병든 존재들을 보면 슬피 울어 常淚(常啼)菩薩라 한다. 음역하여 薩陀波崙이라 함.

78) LMppś, Vol. 3, p. XXXIII, Université de Louvain, 1970.

79) 김형희, 『般若經의 十八空法-대지도론의 설명과 라모트의 주석-』, 경서원, 2008, p. 355 재인용.

부의 기원이 붓다의 동일한 법칙에 있음을 설한 것이다. Mppś에 인용된 나가르주나의 『중송』, 아르야데와의 『백론』, 라훌라바드라의 『찬반야바라밀게』 구절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 원문을 주석에 병기하며 범본 Mppś의 근본 취지를 복원하려 노력한 에티엔느 라모트는 꾸마라지바가 Mppś를 『중송』의 나가르주나의 저술로 간주하고 번역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들을 지적하는데, 일례로 꾸마라지바는 쿠마랄라따(Kumāralāta)⁸⁰의 『대장엄론경⁸¹』을 마명⁸²의 저작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진정한 성직자로서 에티엔느 라모트는 서지학자로서, 문헌비평가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글쓰기를 이루어낸 번역자로서 LMppś 저술에 헌신하였다. 그의 작업을 토대로 비로소 Mppś의 실증적 연구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의 연구 결과에 관한 천착 없이 Mppś 원본의 가치와 위치를 상상하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로 동서양 불교학자들은 그에게 대체 불가능한 지대한 빛을 지고 있다. 더구나 한국 불교학의 원로 이기영 선생의 원효 연구 역시 에티엔느 라모트의 권유로 인한 것이니 한국의 불교학과도 끈끈한 연관을 맺고 있는 셈이다.

1997년 초기 번역 시절 오랫동안 용기를 북돋아 주고 큰 도움을 베풀어 주신 지장선원 주지이자 현 판교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일운 스님께 감사드린다. 스님의 정신적 물질적 도움이 없이는 이 번역이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지도론』의 체계적 번역과 서지학적 연구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현대 불경 역주의 전범 라모트의 LMppś 번역 대장정의 길을 이어가고자 한다.

2022년00.00

『어린 왕자』 읽는 어른, 원담 송태효 두 손 모아 고개 숙임.

80) 鳩摩邏多(童受)

81) *Kalpanāmaṇḍitikā*, 『大莊嚴論經』

82) Asvaghosa, 馬鳴(CE 80~160)